

# 나주에 초대형 실내워터파크

### 송월동 4천여평 부지에 10월 준공 파도풀장·찜질방 등 놀이시설 갖춰

나주 중심가에 대규모 실내 관광워터파크가 들어선다. (조감도)

(주)나주워터파크(대표 정승윤)는 나주시 송월동 774-28번지 일대 4천여평 부지에 1만 621㎡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나주워터파크에는 다양한 워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파도풀장을 비롯해 워터슬라이더, 슈퍼볼, 스피드슬라이더 등 최신 물놀이 시설이 들어선다.

또 부대 시설로 찜질방과 사우나, 헬스클럽 등도 설치된다.

나주워터파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외지 관광객들에게 나주를 알릴 수 있도록 2층 로비에 특산물 전시장과 천연염색관 전시장이 마련된다.

또 주중세트장과 천연염색관 등을 연계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며 100여명의 주민들을 직원으로 채용,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하나로마트가 워터파크 건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나주농협과 입주 조건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이밖에 인·허가 과정에서 이미 지방세를 14억원을 납부하는 등 정상 가동이 이뤄질 경우 지방 재정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승윤(34) 나주워터파크 대표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가 입점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나주가 고향인 만큼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나주워터파크 건물이 들어선다.

정승윤(34) 나주워터파크 대표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가 입점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나주가 고향인 만큼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외지 관광객들을 대거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광주·전남의 대표적 실내 워터파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승윤(34) 나주워터파크 대표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가 입점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나주가 고향인 만큼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 “보성녹차 이용 음식솜씨 자랑”

27일 서울 코엑스 경연대회

‘보성군과 함께 하는 녹차 음식 경연대회’가 오는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도양 홀에서 열린다.

보성군과 국제 차(茶) 문화대전을 주관하고 있는 ‘티월드 위원회’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경연대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 1명당 3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출품분야는 녹차나 녹차가루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독특한 요리나 궁중음식, 떡, 과자, 반찬 등 어떤 음식이라도 가능하다.

심사는 ▲향토성 ▲지역 전통음식으로서 발전 가능성 ▲외식산업화 가능성 ▲기호성 ▲지역농산물과 소비연계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참가 희망자는 20일까지 작품설명서와 함께 전형료를 티월드위원회(www.teanews.com)에 접수하고 행사 당일인 27일 작품을 출품하면 된다. /보성=안구일기자 gjahn@



## 광양제철 47개 외주사 ‘연합봉사단’ 결성 ‘나눔의 봉사’ 펼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외주 파트 너사(이하 외주사)들이 ‘연합봉사단’을 결성했다.

광양제철소 47개 외주사들은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사회의 봉사하기 위해 20일 광양시 중마동 커뮤니티 센터에서 연합봉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성웅 광양시장과 허남석 광양제철소 소장을 비롯한 외주 파트너사 임직원 300여명은 ‘함께하는 즐거움, 나눔의 봉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봉사문화 정착을 결의했다. (사진)

연합봉사단은 CEO 봉사대, 지역 봉사대, 긴급재난 구조대, 행사 지원대 등 분야별, 기능별로 특화된 봉사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송병원 봉사단장(부

광희 대표이사)은 “47개사 8천명 외주사 임직원들이 연합봉사단 창단을 계기로 소외된 이웃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한편 광양제철소 외주사 협회는 지난 1987년부터 20년간 각 회사 별로 54개 봉사단을 결성해 농어촌 마을, 학교,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1만6천 500여명이 이웃돕기에 나섰으며 10억 2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이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적극적으로 이웃돕기와 재해복구에 나서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 완도 유자과즙 日 수출한다

고금농협, 日 업체와 10월중 200여t 수출협약

완도산 유자 과즙이 오는 10월부터 일본에 첫 수출된다.

완도 고금농협(조합장 정남선·사진)은 지난 19일 김성훈 농협중앙회 일본 사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도쿄 관동식연(주) 사기야 카주오 대표와 수출협약을 맺고 일본 시장 개척에 나섰다.

이번 협약체결로 고금농협은 유자과즙 200여t (시가 5억원) 이상을 일본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또 관동식연(주)은 1억원 상당의 과즙기계를 올해 선 투자 형식으로 고금농협에 설치할 예정이어서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유자를 가공, 일본에 수출하게 된다.



이 총분하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남선 조합장은 “일본시장 개척이 본격화될 경우 판매 다양화로 유자농가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 고금·금일에서는 107ha에서 연간 1천200여t의 유자가 생산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비 건립

담양군은 지난 19일 수북면 대방리에 향일 애국지사인 신용희 의사 추모비와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비를 건립했다. 수북면 개동리 출신인 신용희 의사는 일본군과 무장항쟁을 벌여오다 지난 1908년 1월 19일 장성 탑정리 전투에서 35세의 나이로 순절했다.

담양군은 지난 19일 수북면 대방리에 향일 애국지사인 신용희 의사 추모비와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비를 건립했다. 수북면 개동리 출신인 신용희 의사는 일본군과 무장항쟁을 벌여오다 지난 1908년 1월 19일 장성 탑정리 전투에서 35세의 나이로 순절했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

## 화순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공사 재개

大法 무효판결로 중지 두달만에 전남도 설치 승인

전남도가 지난 18일 화순군이 신청한 한천면 가암리 ‘농촌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대법원의 설치승인 무효판결에 따라 중지됐던 공사재개가 가능해졌다.

중단된 농촌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인근 지역주민과의 대화에 나섰다. 화순군은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에게도 주민대표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매립시설 조성

의 시급성을 감안, 인근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올해 말까지 조성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光州日報 인터넷 신문  
www.kwangju.co.kr

## 나주시의회 ‘외유성 백령도 연수’ 논란

나주시의회의 백령도 의원연수를 놓고 연수를 구실로 한 ‘사실상 관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주시의회 의원 12명과 공무원 등 24명은 2박3일 일정으로 인천 및 백령도 의원연수에 나섰다.

시의회는 첫날 인천에 도착, L호텔에서 모 연구원으로부터 지방의회 조례 입법 실무 등을 교육 받은 뒤 나머지 이틀간 백령도를 방문한다. 백령

도 연수는 주둔부대 위문 이외에 공돌해안, 사곶 천연비행장 관광, 등산 등 관광 일정으로 짜여 있는데 나주시의회는 이번 의원 연수비로 1천여만 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의회 개원 뒤 곧바로 제주도 연수를 다녀온 데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 내 연수를 촉구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백령도 연수는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 음식물쓰레기 복합처리기

광산구 아파트단지 시범운영

광산구가 청소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새로 개발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사진)를 시험 운영하고 있다.

광산구는 관내 벤처기업인 ㈜청수하이클린에서 개발한 음식물 복합처리기 1대를 지난달부터 신가동 삼성아파트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미생물 발효를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이 장비는 대당 200~250 가구분에 해당되는 80여t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이 처리기는 투입된 음식물을 분쇄·탈수 등의 과정을 거쳐 24시간만에 처리기를 통해 생산된 퇴비 염도는



1.4%로 가로수용 퇴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염도를 더 낮출 경우 채소 비료로도 이용할 수 있다.

구는 대당 2천만원선인 이 처리기를 200가구가 10년간 사용할 경우 차량으로 수거해 처리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6천200만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

# 베트남 국제결혼

**지금 당신의 신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오자이 국제결혼이 함께합니다.**

**본사만의 장점**

1. 본사가 베트남 현지에서 위치하여 결혼비용 완전 거품제거-실속결혼비용
2. 국내 유명 결혼정보업체 현지 대행사로 풍부한 성혼 노하우 축적
3. 현지 최다 여성회원 보유
4. 신랑의 신상을 정확히 파악 그에 맞는 상대여성과 초·재혼·만혼별 맞춤형 결혼 추천
5. 신부대상 한글, 한국문화, 예절교육을 입국전 실시하여 국내적응지원

**베트남 결혼수수료 무료 고충상담**

대상 : 베트남 결혼여행 후 결혼수수료 지연으로 4개월이 지나도 신부가 입국하지 못한 경우 본사 베트남 현지 직원들이 문제점을 시원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문의 전화** 062)232-8966  
010-5256-8966

베/트/남/전문 아오자이국제결혼  
광주시 동구 충장로4가 55-1 금양오피스텔 1003호

전국 A/S센터 대표번호:1588-4434  
홈페이지 www.sasakid.co.kr

**SASA&통과제리의 새로운 이름 "SASA"**

아이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해가는 새로운 SASA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최고의 A/S**

아동가구 13년! 아동학생가구 시장의 자존심을 세워나갑니다.

신속한 정보: 제품 배송과 동시에 고객님의 정보를 진심화하여 A/S신청 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처리: SASA 만이 SASA 가구를 A/S를 할 수 있으며, 수리하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저렴한 비용: 제품 결함시 1년간 무상A/S, 이후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중 불편한 점이 생기면 A/S센터에 연락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A/S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최고의 Design**

프린세스 원목 시리즈 출시

프린세스 원목시리즈는 미소 원목을 사용한 친한계 제품입니다. 가볍고 미려한 목리(나무결)를 가지고 있으며, 집성목으로 가공하였기에, 울이,뒤틀림이 없습니다. 사이즈가 넉넉해 어린 자녀라면 부모님과 함께 잘 수 있으며, 중고생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